

“내 법체 사라지더라도 성지 순례하며 정진하라”

특별기고

부처님 8대 성지를 가다

우리는 인도와 네팔의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쉬라바스티, 상카시아, 라지기르, 바이살리, 쿠시나가르를 흔히 부처님 8대성지라 부른다. 고타마 싯타르타라는 인간이 본래면목을 확인하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전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불자들은 이곳들을 순례하며 신심을 다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2~22일 11일간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하는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여기에 동행했던 조계종 홍보팀 유철주 주임의 ‘구법기’를 통해 부처님 성지를 함께 돌아본다. <편집자>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전에는 비구들이 각 지방에서 안거를 마치면 세존을 뵈고 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더 이상 법을 들을 수 없게 되니, 그것이 몹시 슬픔입니다.”

“아난다야,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숭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곳이 넷이 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깨달음을 얻은 곳, 내가 처음으로 설법한 곳, 그리고 내가 열반에 든 곳이다. 그곳은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배할 곳이다. 그곳을 순례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이요,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 도를 얻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당시의 법체가 사라지더라도 대중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정진하기를 당부했다.

이런 순례를 통해서 새삼 느낀 것이지만 성지를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 현장에서 느끼는 환희심은 가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대중들에게 성지순례를 많이 권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필자는 종단이 진행한 8대성지 기획취재가 ‘인연’이 돼 순례길에 올랐다.

2월 12일 공항에서 출발한 20명의 기획취재단은 비행시간만 9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으로 인천을 출발해 델리로 도착했다. 현지 시각 12시(한국은 인도보다 3시간 30분 빠르니 정말 한밤중에 도착한 것이 다)가 넘어서 달은 델리는 자욱한 안개와 어둠뿐이었다.

그 옛날 위법망구(爲法忘驅)의 정신으로 수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현장 스님과 법현 스님, 혜초 스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독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13일 우리 일행은 1시간 30분 눈을 붙인 후 기차를 타고 첫 번째 순례지 쉬라바스티로 향했다. 인도의 중심 델리역은 인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와 대합실 어디에서나 노숙하고 있는 시민들, 승강장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오물냄새... 철길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오물들은 ‘이곳이 한 나라의 수도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차를 타고가면서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인도에서 제5계급이라 불리는 ‘불가촉천민’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가촉천민들은 풀과 천으로 덮여있던 이 ‘굴막’에서 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거지차림’에, 평소엔 무엇을 먹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연 몸통 뿐이다. 안타깝고 답답했다. 부처님과 암베드카르가 왜 ‘해탈’과 ‘차별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될 정도다. 기차는 빠르게 달렸지만 불가촉천민의 모습은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온통 낯선 모습에서 인도가 정말 먼 나라임을 생각한다. 인도가 내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으로 순례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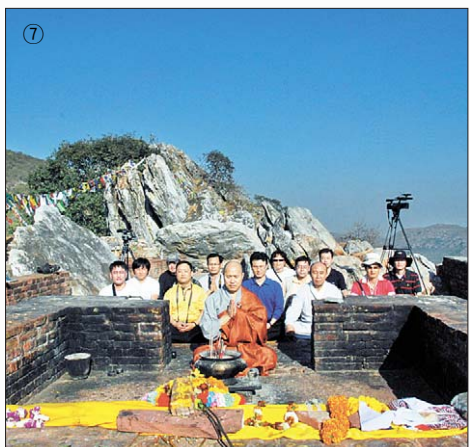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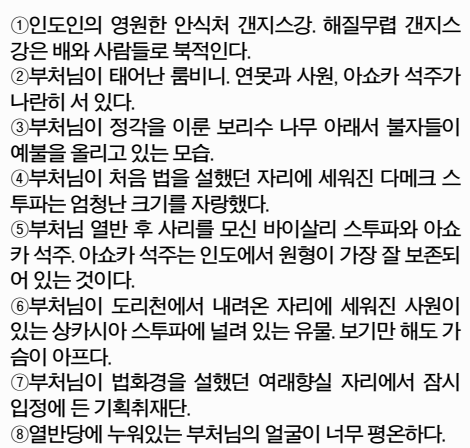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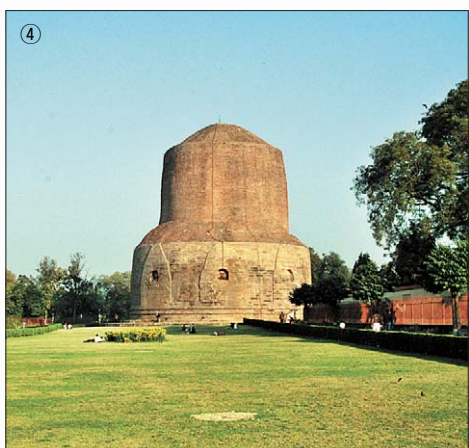
그래도 설레임은 살아 있다.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두근거린다.

기획취재단이 맨 먼저 찾은 곳은 쉬라바스티. 부처님이 24회 우안거를 지냈고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비롯해 현재 전해지는 대승경전의 2/3를 설한 기원정사와 수달타 장자 스투파와 앙굴리말라스투파 등이 있는 곳이다. 기원정사 터는 아득하고 포근했다. 넓게 뻗은 대지에 잘 꾸며진 정원처럼 기원정사는 자신의 품을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다.

기원정사에서 기획취재단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강경>이 설해졌던 ‘간다쿠티’에서 종단 표준 <금강경>의 발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약속으로 봉행했다.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해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을 하는 의미만 알아도 <금강경>을 다 본 것이라고 하



기획취재단을 비롯한 세계의 불자들은 2월 14일 <금강경>이 설해졌던 간다쿠티에서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발간을 부처님께 고했다.



- 1 인도인의 영원한 안식처 갠지스강. 해질무렵 갠지스강은 배와 사람들로 북적인다.
- 2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연못과 사원, 아쇼카 석주가 나란히 서 있다.
- 3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불자들이 예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
- 4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자리에 세워진 다메크 스투파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
- 5 부처님 열반 후 사리를 모신 바이살리 스투파와 아쇼카 석주, 아쇼카 석주는 인도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 6 부처님이 도라천에서 내려온 자리에 세워진 사원이 있는 상카시아 스투파에 달려 있는 유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 7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여래항실 자리에서 잠시 입정에 든 기획취재단.
- 8 열반당에 누워있는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 평온하다.

는 고승들의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원정사에 직접 앉은 것만으로도 셀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듯했다.

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룸비니와 쿠시나가르를 찾았다.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 속에 숨어있던 룸비니에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 세워진 마야데비 사원과 마야부인이 몸을 씻었다는 연못, 아쇼카 석주 등이 남아 있다. 마야데비 사원 안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며 걸었던 족적이 남아 있어 순례객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둔인가? 부처님의 족적을 보아도 그 답은 보이지 않았다.

룸비니를 참배하고 7시간을 달려 도착한 쿠시나가르는 우리 나라의 작은 공원과 같은 분위기다. 가족 단위 니들이객들이 공원 곳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열반당 근처에는 태국, 티베트, 미얀마, 네팔, 일본, 대만 등지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이 북적인다. 부처님은 바이살리에서 쿠시나가르로 ‘열반의 여정’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다.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한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순례길에서 만난 조계종 원로의

먼나라 인도서 마주한 부처님 흔적에서 다시 한 번 발심

인도불교 쇠퇴 원인서 현대한국불교의 나아갈 길 찾아야

원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너무 아파서 멸진정에 들어 버리는 구절이 경전에 나온다”며 “부처 역시 인간으로서 마지막 길을 가셨다”고 전한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열반당에 누워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그저 평온할 뿐이다.

바이살리는 삼채전신 중의 하나인 다자탑이 있고 부처님 사후 제2결집이 진행됐던 곳이다. 이곳에는 아쇼카 석주와 대형 스투파 2개, 대립정사 터가 있다. 스투파2는 부처님 입멸후 8등분된 사리를 분배 받은 바이살리의 릿차비족이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이다. 스투파1 역시 아쇼카왕이 세운 것으로 부처님 사리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스투파1 옆의 아쇼카 석주와 사자상이다. 이 사자상은 쿠시나가르를 향해 앉아 있는데, 부처님의 마지막 여

정 바이살리에서 쿠시나가르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살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마 거사.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일화로 잘 알려진 유마 거사는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재가 불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유마 거사의 법력이 높아 부처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문병하기를 꺼려, 문수보살이 가서 만나 나눈 불이법문은 아직도 게으른 나를 채찍질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 최대 불교대학이었던 나라다 대학터를 둘러보고 라지기르로 갔다. 라지기르에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산과 왕사성, 불교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 범비사라왕 감옥터 등이 있던 곳이다. 영축산 정상에 오르니 왜 이름이

영축산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독수리 머리 모양의 바위가 순례객을 맞이한다. 부처님이 머물던 여래항실과 아난이 거처했던 시자실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놓여져 있다. 마치 부처님이 설법 도중 갑작스레 한 송이의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들어 보이셨고 모든 대중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었음에도 마하가섭만이 꽃을 들어 보인 뜻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듯이, 한국의 그것과 같이 영축산은 넓고 포근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던 보드가야는 정말 성지다웠다. 세계에서 온 불자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참배하는 이들도 많다. 참선에 든 한국 불자,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 스님, 진언을 하는 대만 불자, 생김새와 수행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부처님 깨달음 자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

마하보디대탑에 들어가 부처님을 참배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꽃공양을 올리는 모습에는 정성이 가득하다. 시간을 내어 절이라도 실컷 하고 싶지만,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이동해야했던 것이 아직도 아쉬울 따름이다.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후 법을 처음으로 설한 곳이다. 과연 사르나트에는 녹야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슴이 살고 있었다. 또 ‘진리를 보는 탑’이라는 뜻을 가진 거대한 다메크 스투파도 우뚝 서 있다. 벽돌뿐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승원 터와 아쇼카 석주도 남아있다.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룬 뒤 사르나트에 있는 다섯 비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을 아팠을까?

부처님 성지는 아니지만 인도인 전체가 ‘생명의 강’으로 생각하는 갠지스강에 들었다. ‘강’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없어져 천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일행 중 누가 “목욕을 해서 죄가 없어지면, 갠지스강 물고기들이 제일 먼저 천상으로 가겠다”는 말을 던지자 내 말문이 막혔다. ‘평소에 잘 살라’는 뜻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다.

갠지스강에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더미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화장터에서 불에 태워지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능청스럽게 앉아 있는 소와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참고로 화장 역시 계급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서는 브라만, 제일 낮은 곳에서는 수드라 신분의 사람들이 새로 변한다.

우리가 부처님 8대 성지중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상카시아다. 쉬라바스티 천불화현 스투파에서 이교 도에게 ‘이적’을 보이신 후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도 리천에서 마야부인에게 법을 설하고 내려오신 곳이 바로 상카시아다. 상카시아는 부처님이 인간과 신의 영역 중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게 하는 곳이다. 어느 스님의 말처럼 ‘부처님이 신성시 되다 보니 상카시아의 경우와 같이 ‘신’적인 영역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상카시아는 다른 성지에 비해 발굴도 더디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 인근 주민들도 비교적 순수해 보였다. 다른 성지의 경우 순례객들 모습만 보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 대부분이 “원달러” “틴투피”를 외치며 이방인들을 따라 다녔지만 상카시아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동산 크기의 상카시아 스투파 정상에 가니 여기저기 무구는 유적들이 널려 있어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다.

순례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인도에서는 왜 불교가 망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 대중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일반대중들이 행하고 있는 의례를 부정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그에 대체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했고 모든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평등사상을 가진 불교가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에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힌두교는 토속적인 신앙을 포용하고 일상생활 규범을 체계화해 대중을 포용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한국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들이 고민하고 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불교는 그 법륜을 더 잘 굴릴 수 있다. 부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눈높이’ 포교, ‘맞춤형’ 수행 등은 아직도 우리에게 절실하다.

부처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둘러보면서 다시금 부처님 가르침과 실천대로 살 것을 생각한다. 더 잘 살아야겠다고 또 되새긴다.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래면목을 찾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그려본다.

인도에 다녀와서 하루 108배를 다시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절이어서이긴 하지만, 한 배 한 배 머리를 숙이며 하심하고 또 하심하기를 다짐한다.